

‘불완전 정상화’ 조선대 힘로 예고

정이사 첫 회의 대학 구성원 반발 몸싸움... 장소 변경 ‘진통’

강현욱 이사장 선출

조선대학교의 정이사 체제 전환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사회가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로 몸싸움이 빚어지고 장소까지 변경되는 등 진통을 겪으면서 대학 정상화까지 힘로를 예고했다.

조선대는 15일 오전 대학 이사장실에서 첫 이사회를 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학생과 동문 등이 옛 재단 일가의 이사 참여 배제를 주장하며 이사장실에서 농성을 하는 바람에 회의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 등은 옛 재단 측 이사인 박모씨 등과의 면담을 주장하는 등 반발, 이를 막는 대학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이사들은 광주 시내 모 호텔로 자리를 옮겨 이사회를 열고 강현욱 전 전북지사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인터뷰 2면〉

조선대는 새 이사장이 선임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의견 충돌을 빚고 있는 나머지 이사 2명의 선임권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대 관계자는 “일부 학생과 동문의 반발로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해 이사를 동의하여 장소를 변경했으며 이사장 선출 이외에 다른 안건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면서 “공식적인 첫 이사회가 개최된 만큼 교과부와 상의해 아직 선임되지 않는 2명의 이사에



고(故) 박철웅 전 조선대 총장의 딸인 박성숙(왼쪽에서 두번째)씨가 15일 오전 ‘구 재단 이사 참여 반대’를 주장하는 학생과 동문들을 피해 조선대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조선대 본관 2층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첫 이사회는 학생들의 반발로 광주 모 호텔로 자리를 옮겨 개최됐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한 선임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1988년 박철웅 전 총장 일가가 물러난 뒤 21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가 계속돼오다 지난해 말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회분쟁조정위원회가 정이사 7명을 선임,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선임된 이사는 교과부와 협의 조선대가 추천한 강 이사장과 남궁근 서울산업대 교수, 김택민 고려대 교수, 김용익 동신대 교수 등이며 종전이사 2명이 추천한 이원구 전 조선대총장회장, 강창원 변호사, 옛 재단이 추천한 박성숙(의사)씨 등이다.

대학 측은 이날 첫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민주당우회 등 88년 학내 민주화 투쟁을 주도했던 동문과 일부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함께 교직원과 학생, 동문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정이사 쟁취 범조선대비상대책위원회’ 등도 옛 경영진 측의 정이사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혀 앞으로 대학 정상화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구 재단 측도 미 선임된 이사(2명)에 대한 선임권을 주장하는 등 대학 측과 대립하고 있어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강현욱 선임 조선대 이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이해관계를 떠나 조선대의 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한 곳으로 모으자”고 당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 기초의회위원장 “세종시 수정안 철회하라”

전남지역 22개 시·군의회 의장단은 15일 무안읍 송담문화예술회관에서 ‘세종시 원안추진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세종시 건설과 국도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하는 수정안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인 건의문에서 “세종시 사업

은 정부가 솔선수범해 지방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고 수도권도 재정비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세종시 원안의 수정이나 변질은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결국 무위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전쟁보다 참혹’ 아이티를 구하라

천주교 광주대교구·광주 굿네이버스 성금 모금

이대통령 “G20 지원 결의”...30대그룹 동참 요청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아이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긴급 의료지원팀과 구조대를 파견하고, 네티즌도 모금운동을 벌이는 등 절망에 빠진 아이티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구체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15일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광주·전남 119곳의 성당에서 ‘아이티 참사 성금’을 모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서도 아이티에 보낼 후원금이나 물품을 모아 함께 보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굿네이버스 광주지부도 본부와는 별도로 아이티에 보낼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을 모을 계획이다. 굿네이버스 광주지부 조현경(여·28) 대리는 “굿

네이버스 본부 차원에서 현재 1차로 긴급구조팀을 파견했으며, 광주지부에서도 후원금 등을 모아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아이티에서 발생한 최악의 강진피해와 관련, “G20(주요 20개국) 국가들이 만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연락해서 지원하는 결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30대 그룹 회장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소개한 뒤 “세계가 관심을 갖고 (아이티를)복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날 응급의사 2명, 외과의사 1명, 간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의료지원팀을

아이티로 파견했으며, 중앙 119구조대와 적십자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41명으로 구성된 긴급구조대도 인천공항을 통해 현지로 떠났다. 이날 파견된 119구조대에는 지난 2008년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국 쓰촨성 지진 당시 인명구조 활동에 투입돼 맹활약했던 구조견 ‘백두’가 포함됐다.

인터넷 포털들도 최악의 지진 참사를 겪고 있는 아이티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NHN이 운영하는 기부포털 ‘해피빈’은 누리꾼이 아이티를 도울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4일 이슈모금함에 ‘아이티 강진 긴급 모금’ 페이지를 만들었다.

이밖에 트위터에서도 누리꾼들이 ‘아름다운 가게’ 등 기부단체의 모금통장 계좌번호를 올리는 등 기부 방법을 전파하는 한편 아이티 실상을 빠르게 전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연합뉴스

박광태 광주시장 “3선 도전”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내달 중순 출마 회견”

박광태 광주시장이 3선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시장은 15일 광주시의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광주 발전을 위해 마무리 할 사업이 많다”며 “내달 중순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와 관련, 각종 설들이 난무해 일찍 광주시장 선거 출마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면서 “2월 중순에 출마선언을 한 뒤 4월께 예비후보등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회의원 3선과 광주시장 재선을 하면서 광주에서 많은 일을 해왔다”며 “작년 말 3선 도전에 대한 갈등을 겪어왔으나, 그동안 추진해왔던 R&D(연구·개발) 특구지정

과 관광산업 및 도시발전 등 관련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중단없는 약진’, ‘아름다운 마감’을 위해 3선에 도전하기로 했다”고 3선 도전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시장의 재출마 의사 표명으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전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1970년부터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정치적 길을 달리해 본 적이 없다”며 “민주성이나 개혁성, 도덕성, 추진력 면에서 현재 광주시장 후보로 나선 정치인들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고 자평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중앙당에서 추진하는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통해 광주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며 “민주당 공천을 확신하고



있는 만큼 경선이 마무리된 뒤 4월 초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아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 김윤석 경제부시장이 유력하다며 사무총장과 부시장을 겸임하게 할지, 후임 부시장을 별도로 임명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오는 26일 창립하는 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에 근무할 공무원들을 인사한 뒤 이달 말부터 내달초까지 정기인사를 단행하겠다”며 “유니버시아드 유치에 공이 있는 공무원들을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